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디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발	행	인	이	강	희
편	집	인	경	기	연
주	집	인	간	재	봉
편	집	정	노		
내신사	집	962-7128, 961-4151			
외대	집	961-4152, 033-30-4112			
130-791	서울시 강남구 이정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읍 충산리 89				
인	석	인	김	상	영

제605호 1993년 5월 18일 (화)
제3층 우편번호 (기) 05101

1

과학생회, 외대발전 투쟁의 핵

작년 2학기 쓰러지는 폭우 속에서 사수했던 정기학술회와 10여일이나 배수를 권리리를 포기한 대학원생의 기의이 아직도 선명하다. 새기들은 외대발전 투쟁의 새로운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현재의 외대발전 투쟁으로 전설처럼 선기들은 여기에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전설이 아닌 외대원의 투쟁의 역사이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이다.

황성수 : 선배들에게서 적년 외대발전 투쟁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옛날 직접 진회에도 많이 참여했지만 지금까지 고등학교는 작은 웃더리속에서만 생활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대의 현실과 외대원 투쟁의 파제가 잘 살아나게 제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철훈 : 신입생이 먼저 외대 현실을 가슴으로 느끼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작년 외대발전 투쟁은 물분자에 임아났던 것도 외대의 위험 하락과 용인으로의 캠페인 이전부터는 절박한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로 과학생회를 중심으로 해 원외대의 문제점 을 계속 보면서, 외대발전을 이루기 위해 과단위의 요구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황성수 : 제작 전문이 아니었던 학제의 투쟁 목표가 어렵게 느껴져 학우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원예의 목표가 본격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목적으로 기기 위한 외단계적 소목적이 있어서 안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철훈 : 그러한 단계적 소목적으로 지난 3, 4월 동안 1·2·3차에 걸쳐 이문동 중기 무지개회와 계원학부, 병안대 대학 광개토에서 대학남구에 보냈습니다. 그 광개토에서는 과단위에서 보낸 내용으로 대로 해야했는데, 대체로 학우들이 토론이나 사설을 지지부진 했습니

황성수 : 사실 저도 그러한 광개토에서 대학 내용을 충실히 이야기하거나 토론하지 못했습니다. 과학회장은 일상히 험하고 부끄러워 했습니

이에 본보에서는 작년 7천 학생의 디딤돌로 '협의서'라는 상표들을 만들어 교회를 되찾기 위해 학생회의 지도와 학생 대중이 긴밀하게 연락되지 않고 있다는 자의이나 오고 있는 현재의 외대발전 투쟁을 전단해보고 이후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기획된 서사를 캠퍼스 종합회관 (서양·영어 4)과 황성수(동양·인도 1) 교수의 대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철훈 : 집회에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학생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사업을 진행해나야 합니다.

황성수 : 하지만 알미전 교수님들은 외대발전 투쟁을 하는 학생들을 학회에 의해 징계하겠다는 정교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본심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제에 대한 해결이 쉽습니다.

이철훈 : 저 또한 외대 교수님과 외대원 투쟁을 하면서는 같은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수 : 아직까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으로 교수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성수 :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충청남도 교수님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못합니다. 과연 외대발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길 싶지만 그 리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철훈 : 충청남도 교수님을 그리고 깨끗한 학생들이 직업 경력자들에게 공개되거나 간접 형태로 학생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리 마련하기 위해 학교측에 계속으로 제언하고 있고 끝은 시간안에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황성수 : 저는 인도어를 공부해 와도 학생들에게 활동하고 싶어 선배들에게 힘을 줄 것이라거나 계획해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계획이 어려워 한글판 학회에서 계속으로 만들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에서 계속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철훈 : 복수 이학계열 발전 정책이 학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학교 스스로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데다 학우들의 작품 요구가 모두 외대발전 투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감하고 부족 기뻤습니다.

황성수 : 과단위의 투본 아니라 진체 청와에서의 투본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비상학생총회에서처럼 학생들이 집회에서 직접 의견을 드릴 때에는 구체화되고 원

전을 세우고 함께 토론하는 지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훈 : 집회에서 내용을 함

께 공유하고 학생회는 학생회 사업에 오류가 있으면 해당된 미리와 함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사업을 진행해나야 합니다.

황성수 : 하지만 알미전 교수님들은 외대발전 투쟁을 하는 학생들을 학회에 의해 징계하겠다는 정교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본심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제에 대한 해결이 쉽습니다.

이철훈 : 저 또한 외대 교수님과 외대원 투쟁을 하면서는 같은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으로 교수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성수 :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충청남도 교수님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못합니다. 과연 외대발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길 싶지만 그 리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철훈 : 충청남도 교수님을 그리고 깨끗한 학생들이 직업 경력자들에게 공개되거나 간접 형태로 학생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리 마련하기 위해 학교측에 계속으로 제언하고 있고 끝은 시간안에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황성수 : 저는 인도어를 공부해 와도 학생들에게 활동하고 싶어 선배들에게 힘을 줄 것이라거나 계획해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계획이 어려워 한글판 학회에서 계속으로 만들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에서 계속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철훈 : 복수 이학계열 발전 정책이 학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학교 스스로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데다 학우들의 작품 요구가 모두 외대발전 투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감하고 부족 기뻤습니다.

황성수 : 과단위의 투본 아니라 진체 청와에서의 투본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비상학생총회에서처럼 학생들이 집회에서 직접 의견을 드릴 때에는 구체화되고 원

동구어대 단대분리 대생협 자치권

팽팽한 줄다리기

학교총회 매경 3월거래 현황 및 거래 영수증을 요구해 대생협에서 침수장 부·거래현황 업수증 등을 제출했을 때 불구하고 사임자등록증 교부를 이루고 있다.

리거자 : 대생협이 뜻대친성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생협에서 침수장 부·거래현황 업수증이나 보다 광범위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한 것이다.

대생협은 현재 학생회관 쇠 당을 비롯 4층의 구내매점, 자판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익은 조수원들에게 배우고 복지장금으로 쓰인다.

이에 대해 대생협은 뜻대친성은 사업자 등록증을 기자하고 운영

7월회주의 소장, 동구어대 단대분리

현제 2천8백명의 정원을 가진 서울대학에서 '셋방식'을 하고 있는 동구계열 5개학과, 이들은 동구에 민관 학생회장을 해서 청진으로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수의 주장은 세우며 광범위한 협의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교총과 학교총회는 이전에 세우고 있다. 현재

동구계열 5기회를 모색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 이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현제 2월20일 대구에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해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수의 주장은 세우며 광범위한 협의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교총과 학교총회는 이전에 세우고 있다. 현재

동구계열 5기회를 모색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 이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현제 2월20일 대구에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해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수의 주장은 세우며 광범위한 협의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교총과 학교총회는 이전에 세우고 있다. 현재

동구계열 5기회를 모색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 이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현제 2월20일 대구에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해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수의 주장은 세우며 광범위한 협의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교총과 학교총회는 이전에 세우고 있다. 현재

동구계열 5기회를 모색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 이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현제 2월20일 대구에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해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수의 주장은 세우며 광범위한 협의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교총과 학교총회는 이전에 세우고 있다. 현재

동구계열 5기회를 모색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 이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현제 2월20일 대구에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해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수의 주장은 세우며 광범위한 협의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교총과 학교총회는 이전에 세우고 있다. 현재

동구계열 5기회를 모색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 이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현제 2월20일 대구에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해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수의 주장은 세우며 광범위한 협의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교총과 학교총회는 이전에 세우고 있다. 현재

동구계열 5기회를 모색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 이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현제 2월20일 대구에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해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수의 주장은 세우며 광범위한 협의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교총과 학교총회는 이전에 세우고 있다. 현재

동구계열 5기회를 모색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 이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현제 2월20일 대구에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해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수의 주장은 세우며 광범위한 협의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교총과 학교총회는 이전에 세우고 있다. 현재

동구계열 5기회를 모색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 이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현제 2월20일 대구에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해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수의 주장은 세우며 광범위한 협의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교총과 학교총회는 이전에 세우고 있다. 현재

동구계열 5기회를 모색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 이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현제 2월20일 대구에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해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수의 주장은 세우며 광범위한 협의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교총과 학교총회는 이전에 세우고 있다. 현재

동구계열 5기회를 모색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 이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현제 2월20일 대구에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해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수의 주장은 세우며 광범위한 협의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교총과 학교총회는 이전에 세우고 있다. 현재

동구계열 5기회를 모색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 이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현제 2월20일 대구에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해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교수의 주장은 세우며 광범위한 협의를 풀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교총과 학교총회는 이전에 세우고 있다. 현재

동구계열 5기회를 모색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 이하고 동구계열자에게 제공되는 정부상장 상을 차지하는 것이라는 의도입니다. '현제 2월20일 대구에 있는 동구어대 단대분리를 해서 단대분리를 해서 통해 8년간 플랫폼과 부두를 놓아뒀습니다. 지난해 이미 이어나온과가 개설되고 이르렀다. 다음해에는 학우들이 알게 된 시장대학에 분리해 학생회가 계속되고 있는 동구어대 학생회장은 민관 학생회를 해서는 단대분리를 해서 동구계열으로 복지장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이어나온과가 세워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89년 학기인 1학기 입시경쟁률은 32대1인것만 봐도 그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동구의 몰락

을 확보하고 미비한 전공자료를 보충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학생복지관을 확보하여 한다.

본교 노조, 8차 임금협상 결렬로 노동쟁의 행위 투표 실시

어제 총회에서 노동쟁의 행위 부결돼

노조측 기본 입장 고수로 이후 협상 재개할 듯

대학당국과 본교노조간의 임금협상이 어제 18일로 8차례로 이어졌다. 학내 세로운 미흡을 끌고온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오후 1시에 있었던 제8차 임금협상 회의에서 대학당국과 노조는 임금 6% 인상, 상여금 50% 지급, 별도로 기여보조금, 규장각과 지구 문제에서 협의된 조건으로 분계가 된 세수당과 서로간의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와 경과는 험하고 충돌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당국은 대학당국과 노조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임금협상의 타깃이 어려워 조정을 보

도록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노조가 경의행위를 들

입을 걸의하는 않았지만 노조주권장의 밀치면서 이번 임금 협상을 “경고 급급수”라며 면밀히 부른다. 이를 통해 노조에게는 “경고 급급수”라며 면밀히 부른다. 이를 통해 노조에게는 “경고 급급수”라며 면밀히 부른다.

서울, 교수·학생 간담회 개최

‘교부이사 분신임’ 결정 후 서 울캠퍼스 총회에는 시화여론 회를 준비중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노교부원들과 총학생회 간부회의 간담회가 이제 (17일) 교부이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총학생회장 이철수(서양·영어)은 교부이사들에게 “외

부원과 학생들에게 ‘외’ 대발표를 위해 어려워 할 것인

기대에 대한 교수님들의 입장은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후 노조와 노조원

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

의회는 대학당국과 노조측의

갈등을 완화하는 협의회를 개최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노조는 노조원들의

의사에 따라 본격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대
현상

만들어 온 변화, 이제 그 올바른 주체로 설 때

신세대는 어디에 있는가

1. 신세대 현상이란
 2. 변화의 주·객관적 원인
및 학생운동의 전망
- 두 번째

이 미 현
<자유기고>

지난호 '신세대 현상'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80대 변화의 눈을 통해 그 변화의 원인을 살펴본다.

이글에서의 '우리'란 아직 변화의 주제로 남은 80년대 말과 90년 초반을 지키는 대학원에 머물렀던 80년대와 그 이후 변화를 칭하는 것이다.

<편집자>

아침 잠깐 등교하여 도서관 자리 를 잡고 수업에 빠짐없이 들어가며 그 틈새의 자주리 시간을 이용하여 카페에서 영화나 음악회를 듣는다는 한 신입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바로 '신세대'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그 런 학생을 불렀고 '당신이 신세대'임을 아는가?'라는 '신세대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삽입과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학생의 대답은 우리를 매우 당혹하게 만든다. '신세대, 신세대하는데 신세대인 거야?'라고 하니 신세대인가 보다니 생각하지만 내가 신세대인가 같아서는 수업에 잘 들어가고 영화회를 봐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했는데 신세대라는 떄지를 볼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니 그런가보다 그리고 생각할 뿐이요'라고 한다.

1993년 5월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사회에서 부터 위에까지 있고 있는 변화를 느끼고 있다. 매일 신문의 전보를 뒤집어보면서 문민정부의 변화를 굳이 이어가면서 신세대들은 그린 떼를 떠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생각했는데 신세대들은 그린 떼를 떠나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또 그 이전에는 생활·학문·주

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 민나는 신세대들이 그들의 일상적 꿈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생활의 단초로 보면서 이것이 변화구나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보면서 조금은 우리에게 있었던 마음들 이 정작 그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 우리스러움이 자리리 우리스럽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된다. 그것은 우리 가 변화에 조금은 한계를 발견해 저에서에서 광범위하고 있으면서도 이론과 신세대들은 그 변화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생활과 만들어나가는 주의이라는 시선은 저지의 차이에 있는 것이다. 그 차이를 확신 줄여버린 시점에서는 우리보다는 그들에게서 나온 것인간 분명하고 그 시기의 선별을 역시 그런 변화와 한편에서는 달혹스럽게도 한편에서는 그 발달한 생활이 있는 모습에서 조건의 미래를 보면 서로 호흡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우리 투쟁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생활의 중심에서 운동을 고민하고 거치좌를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년 봄,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렸으나 단연 그녀는 같은 어려움과 안락과 같은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저세계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역시 그런 변화와 한편에서는 달혹스럽게도 한편에서는 그 발달한 생활이 있는 모습에서 조건의 미래를 보면 서로 호흡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우리 투쟁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생활의 중심에서 운동을 고민하고 거치좌를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생의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 학생회에 대해서는 너무도 스스럼없이 조사한 모습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내내 아쉬운 것은 어려워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넘겼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감동적인 것이다. 그 당시 우리가 이러한 신세대들의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저녁 경례와 그린 변화를 우리는 이미 지난 92년의 무생년에서, 91년의 무생년에서 스스로 단련되어 내온 것인간 분명하고 그 시기의 선별을 역시 그런 변화와 한편에서는 달혹스럽게도 한편에서는 그 발달한 생활이 있는 모습에서 조건의 미래를 보면 서로 호흡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우리 투쟁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생활의 중심에서 운동을 고민하고 거치좌를 고민하고 그것을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기준에 이루어진 것이다. 87년 대중운동의 판장을 명확히 하고 그것의 과학화를 위해 끊임없이 무생해 온 결과이다. 그 이전까지의 무생임 범도와 대중을 바라보는 웨곡원 시기→대중을 한데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과학과 철학 그리고 사상으로서는 그 이후에 제기된 대중운동의 혁신은 기록적·학제적·문화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기술적·환경적 등으로 나아갔고 그러는 가운데 학생들은 학우대중의 생활의 중심에서 학우대중의 생활의 중심에서 학우대중으로 신체화되는 웨곡원 시기→대중을 한데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과학과 철학 그리고 사상으로서는 그 이후에 제기된 대중운동의 혁신은 기록적·학제적·문화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기술적·환경적 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대상을 좁이고자도 취업률의 관

문을 끌기 위해 빛나게 깨지 도서관에서 불을 밝혀야 하는 현실. 그에 대하여 소비와 생활의 쪽이 활천 넓어진 조건 등이 신체화로 불러지는 학우들의 모습은 조금은 이기적이 형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족적·정치적의 수준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구 구역의 물류와 소외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권의 문화적 침략이 박탈감과 경제신장의 통합으로 만들어 나가게 하는 데 큰 힘을 더해왔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은 권리의식과 주체의식의 학생이 결국 오늘의 변화에 까지 그 동등력을 작용하고 있다.

변화는 항상 새로운 힘을 가

지고 있다

신세대 현상의 가장 특성화된 신세대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이

야기 한다. 그것은 변화의 범위와 방향, 내용이 지역적 개인적인 수준

에서 개인의 이익과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그의 해결 또한 개인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 사회에 해결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 해결의 열쇠를 변화의 막을 끌어내는 곳

에서부터 이미 찾아 와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의 통일, 그동안의 '구국의 강령으로 전대'의 '운동과 생활, 무정과 공동체, 한종일'으로

한국과 주체의식의 고양이라는 양

단계를 거치고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것은 학우대중의 부정과 동 일상적인

부정의 내용을 깨닫게 될 것이다.

변화의 개인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두고 누가 우려

할 것인가? 그리고 풍랑을 이기고 끝난 날이리는 노래가락을 드리고 곳곳

으로 스며들고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두고 누가 우려

할 것인가? 그리고 풍랑을 이기고 끝난 날이리는 노래가락을 드리고 곳곳

으로 스며들고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이룬 변화를 이루어 내었

는지 그 주·개관적인 요인을 알아보자.

변화의 주체적 요인

위의 요인은 그것을 보다 간접화하여 관

한 힘으로 작용하여 오늘의 변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개관적 요인의 주요 내용은 주로

우리들의 인식과 변화를 이기기 위한

힘을 갖춘 것이다. 이전에는 개인적

인식과 사회적인 힘을 통일시켜

나타나는 좋은 교육의 경지가 될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는 한층

높은 힘을 갖춘 것이다. 실지로 6월행장을 통해 강한 자신감을 얻고 조직·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한 노동자들의 뒤

이은 투쟁은 이를 입증해 준다.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신화와 같은 힘으로 거울을 깨우고 있다.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이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6·29 선언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민족과 민족의 분리를 페하는 미국의 목표였다

신노동정책의 핵심 노사자율, 공권력 투입으로 반증

서울장로회 신학교를 찾아



아풀로 산업, 정권 출범 후 첫 공권력 투입

풀어야 할 과제인 고용문제, 인사문제 등 남아

의 행위 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경영 조정방법·생계여행 등을 요구하며 임금을 거부하곤 했었죠. 아풀로 산업 김형준씨의 말입니다.

김형준씨의 말에 따르면, 아풀로 산업은 생계기금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파업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월 4일 (화)과 5월 5일 (수) TV와 신문에서는 아풀로 산업이 조업을 주고 있다고

수출에 온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신

문 5월 7일 (금) 기자 노동부 근로기준 국장 이홍재씨는 아풀로 산업의 상황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고용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 당시 아풀로 산업은 2월 24일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이 회사 측의 부성화의 대로로 21 차례까지 계속되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드러난는 성과들은 없었습니다.

"당시 회사들은 생계기금을 차관부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조원원

지금은 정상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아풀로 산업이 현재 회사측과 협의한 사항은 민·청사진과 2공장 사내에 대한 유관처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풀로 산업

위에서 이런 사례의 합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

청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의 지주성을 축소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상황은 정당화 하기에는 공권력 부임된 당시 상황에 대한 원인을 끌어 냈지만, 노사자유화 노사간 협상을 이기 위한 민주정부의 실패가 아풀로 산업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신예숙씨는 앞으로

그러나 회장은 회장을

제회는 회장을 부임하는 것은

제회와 학교를 보장하는 것은



◇신규체용, 보직교수 임명시에
나타나는 교수파벌문제를 분석한다.

교/수/파/벌/, 대학발전의 걸림돌

임명인. 오늘은 이문동에서 서울·용인 양캠퍼스 청강회의 기 있는 날이다. 다른 날 같으면 아직 7시에 출근자로서 집무실을 밀어다니는 시간이지만 오늘은 조금 그렇기 때문이다.

청강회의 청강자는 총장 8명과 총장, 부총장까지 11명이다. 이 자리에서는 전민적인 학교 운영의 방침들을 논의하고 충주시장을 출석하는 관계된 기관사람을 칭하려고 한다.

화요일, 용인캠퍼스 신강의 광장에서 출근장을 봉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는 광사전체로를 칭하려고 한다. 오후에는 쓰래기 분리배달 문제로 운동장 아래 쓰레기장을 출석하는 관계된 기관사람을 칭하려고 한다.

충주시장이 주제하는 복지위 원회가 목요일에 열렸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시계방울이 기리기는 시간은 12시30분. 마 인어와 같은 수업이 있다. 학교에서도 충주시장은 그날은 신년으로 그는 충주시장을 해내는데, 강의를 위해 수료증은 서울캠퍼스로 출근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충주시장의 일주일 일정은 다른 저장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교수들 이 믿게 되는지 살펴보자. 총장, 학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제청권자인 총장 또한 이사장이 모든 보직을 임명하는 해도 파인 이 아니다. 본집권자는 대부분의 사무적인 책임을 맡아야 한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여기서 보직은 어떤 교수들이 믿게 되는지 살펴보자. 총장은 학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제청권자인 총장 또한 이사장이 모든 보직을 임명하는 해도 파인 이 아니다. 본집권자는 대부분의 사무적인 책임을 맡아야 한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보직교수의 애환

임천강의 이는 교수의 생명이다. 생명유지를 위해선 연구를 해야 하는데 할일은 대신 부르는 곳은 충청남도립대학교다.

보직교수 임명, 재단 이사장의 권한

임명과정, 학연등에 의한 정실인사라는 지적 많아

대학당국의 입장은 상이할 경우는 일자리에 근무를 저지르거나 한다. 보직교수에게는 무엇보다 교수의 생활인 학문연구에 무관한 시간을 잃는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교수는 보직의 일과 미치거나 나면 평생을 대체로 직간접으로 연결되거나 겹친다는 걸 넘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수 임명시

에도 적용된다.

현재 본교의 내국인 교수 265명 중 학부 교수 11

한 학과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불기파한 것으로 충장직선제를

합동으로는 2주, 각 캠퍼스에서 1주간으로 경제화되어 있으나 실제 수료시 기록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학교의 전반적 행정에 관련된 것으로 학식상으로는 명시되어 있다. 내

용장으로 졸업증과 함께 기록의 여력을 하고 있다.

즉, 총장회의에서 결의안을 작성한 후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교무위원회나 전체교수 회의에 회부하여 징수·주인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 문제와 관련해 교수들은 “전체교수회의가

정권을 넘기는 회부된 사항을

증명에 맞게 하는 보적이 특징

인에게 징수·주인 받는

경우에 징수·주인 받는

□ 음악평 -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한 음악장르에 관해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음악 프로그램시브

이 글은 읽으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 미국에서 유행되었던 현제도 유행하고 있는 음악들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대체 문화적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다는 한 예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말 음악성이 있고 적은 감동을 줄수 있는 많은 음악들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도 했지만 그들이 고마워 고마웠던 때가 많았다.

우리가 혼자 '감상'이라고 부르는 음악들은 거의 미국에서 유행되었던 현제도 유행하고 있는 음악들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대체 문화적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다는 한 예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말 음악성이 있고 적은 감동을 줄수 있는 많은 음악들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도 했지만 그들이 고마워 고마웠던 때가 많았다.

그리고 우리는 듣기만 했던 것



언더그라운드 밴드들을 위해

'의 이런 음악이 있다'라고

생각한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

웠다. 그러나 듣으면 듣는수록

발전했음을 볼구하고 정정한

생각이 달리졌다. 한 때는 '이

번 음악이 얼마나 멀리 전진한 음악

이다'라고 경탄하기도 했

다. 그리고 혼자만 듣기만 했던 것

은 어떤 기회만 있으면 친구들을

세워서 (?) 시켰다. 이 글은 쓰게 된

동기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프로그램시브 음악은 60년대

말 '락비네상스' 시대에 영

국에서 처음 생겨났다.

그리고 70년 대로 돌아온다면

서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 유

럽의 여러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음악들은 대부분이 소규

모 레코드에서 소속되어 있는

만 관심을 기울여다면 엄마들이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적

이고, 유형에만 민감한 일반대

중음악에 식상하는 모든 학생

들에게 진정으로 프로그램시브

같은 편이 드리고 싶다.

끌고온 청중들은 분

에게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음

반들을 소개하였다. 킹 크루스

는 'in the court of the

crimson king' 뉴 트로스의

'concerto grosso pearl' 클라

우의 'HOPE' 카펠의 'Stationary Traveller'

김태원

<자연·물리>

수필 - 초도

도심속의 채소밭

'초도'를 지나며

독설하다는 수식을 불일순 없어도 어려워졌던 나는 그를 더 신경이다. 그래서, 신상에 있는 것에 있는 한 일도 보면 그에 있는 것에 기운을 찾는다.

그런데, 이 멀지도 않은 성당과 교회편이 참으로 예매에 어떻게 가는 것인가 같았을 때가 많았다.

택시를 타거나 기사 애니에게 미안한 정도로 기운을 거리이고 버스를 타거나 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때가 많았다. 편의점에 고, 그렇다고 걷거나 직장에 않은 그런 코스인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디비를 퍼제 저녁을 보고 돌아온다면 좋았는데 이미 해는 저 있었지만 한낮의 저녁이 저 쇠지 않아 몹시 더웠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몸이 걸을 때마다 고통스러워지면서 백사장을 심지어 톤한 하나조도 없었던 나는 터버너며

과 강렬한 순우리 대비 때문이었으리라.

그후 그걸 몇 번 지나면서 나는 그걸 '초도(草島)'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다. 그걸은 분명히 끝없는 회의적 바다로 물러쌓인 초

밖의 삶이었던 것이다.

직선으로 분활된 시도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해도 있는 그 속에는 섬들이 바다 위에 신재해듯이 살해하듯이 봄날 초도는 존재하는 것이다.

초도는 또한 미국의 섬이었다. 디비와 무수한 섬들은 산의 산리라라는 그 훈련 님과 평생을 갖기 있는데 만난 초도는 인간들의 일상적인 계산에 의해 만 들어진 아니 벼려진 사생아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방이라는 이 틈에 이러한 창조행위를 할 것이다. 아이들의 얼굴, 선생님들, 부모님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우리가 이룬 것이다.

내가 살을 냈던 그들은 나

의 모임였다. 그에 대한 믿음이

생생하기는 했지만, 막상 교육

실에 들을 것을 모른다는 선생

님들이 너무 많았다. 전교조로

해당되는 선생님들을, 물어가신

선생님, 투병중이신 선생님들,

전국 선생님들, 선생님들

체우고 계신 힘은 선생님들의

모습은 너무 낯설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주제에는 여전히 선생님들과 교육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하였고 행정을 이해하고 편안히 보았다. 그러면 내가 당황하게 시작한 것은 두

주가 지나서 교재연구원에

하고 학습지도안 작성이라는 활

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온 것

이 없었는데 지도부는 그동안

그동안 편지지지에서

우리의 시기에서 기인된 하세였을

리 보았다.

그때 저쪽 이름을 풀고 누군

가기나 나는 것이 보였다. 회부

연하던 그 헤드는 저쪽 그 유파

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경계는 다른아닌 한 노인

이었다.

그는 학생은 소주병을 다른

쪽에는 날개를 들고 피로에 숨긴

글은 표정으로 터버디며 내쪽

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확인해 드리고 나고 그것을 깨닫았다.

그것은 바로 그 노부(老父)

가 바 나온으로 집착되는 100

평 인생의 조그만 채소밭이

었다.

불빛은 없었지만 나는 금새

알 수 있었다.

아이도 화색의 콘크리트들

절어 들어올 수 밖에 없었다.

한 목도리를 상기했던 저

나기던 중, 길에 놓여있던

냉장고를 보자 나는 그에게까지

여누르고 있었던 갈증을 풀어

줄을 찾았다.

그리서 주님이 뒤져있는데

다행히 하드 하나 시장을 정도

의 돈이 수증에 있었다.

나는 이이스터풀을 계설스럽

게 먹으며 잠시 서서 주위를 들

리 보았다.

그때 저쪽 이름을 풀고 누군

가기나 나는 것이 보였다. 회부

연하던 그 헤드는 저쪽 그 유파

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경계는 다른아닌 한 노인

이었다.

그는 학생은 소주병을 다른

쪽에는 날개를 들고 피로에 숨긴

글은 표정으로 터버디며 내쪽

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확인해 드리고 나고 그것을 깨닫았다.

그것은 바로 그 노부(老父)

가 바 나온으로 집착되는 100

평 인생의 조그만 채소밭이

었다.

불빛은 없었지만 나는 금새

알 수 있었다.

아이도 화색의 콘크리트들

같이었을까?

이것은 순수한 그 자체는

미안하지 않았을까?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는 그동안 해온 것

이었다.

그는 터버디며 걸어온 그

노인의 표정을 보았다. 허리

에 부른다. 그 허리에

<p